

# 2020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 대외인식



동아시아연구원

※ 본 설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연구원에 있으므로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opyright(c) 2020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구분	내용
모 집 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전국 읍면동
표집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2020년 4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크기	· 1,003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PI)
조사일시	· 2020년 5월 6일~27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I. 세계화 관련 인식

세계화시대에 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압도적인 다수인 8할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세계화를 수출시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는 무역국가 국민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국산품은 지켜주고 싶은 존재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산품 애용이란 시대착오다라는 생각에는 2015년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보다 6.1% 많았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그렇다는 답보다 7.1%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2015년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보다 1.8% 많았으나 2020년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그렇다는 답보다 8.3%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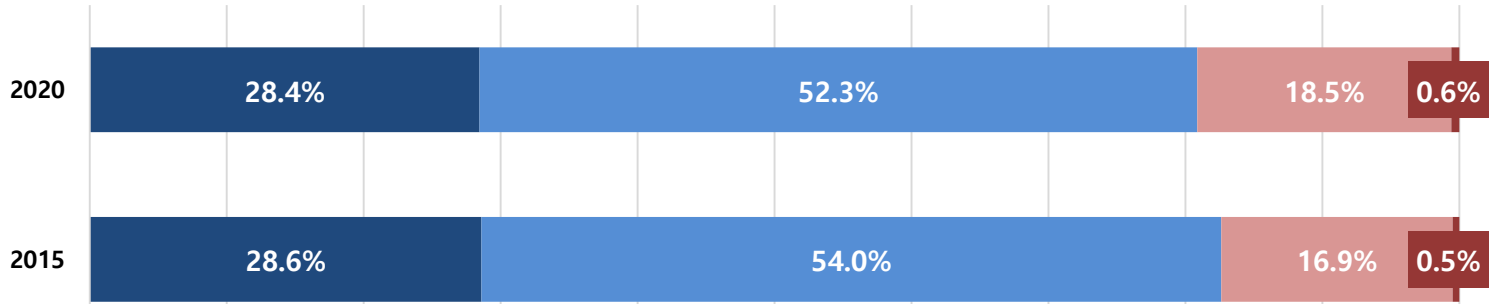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의견은 2015년과 2020년 조사 모두에서 부정비율(2020년 조사 66.4%)이 긍정비율(33.6%)의 두배가 된다. 강한 한국 민족 정체성이 국민자격 요건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국의 입장과 국제기구의 결정이 다르더라도 한국정부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20년 조사 모두에서 긍정비율이 거의 6할에 이른다(각 년도의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각각 18.2%와 17.1% 높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2015년 65.1%가 2020년 58.9%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결정 수용성을 유지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서도 크게 느껴지고 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는 문항은 2020년 조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무려 8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69.5%가 그렇다고 답해 확대중인 빈부격차에 세계화도 한 몫하고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 경제에 더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2015년 조사에서는 63.8%가, 2020년 조사에서는 69.5%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7개 국제기구와 1개 비정부조직에 대한 신뢰도도 양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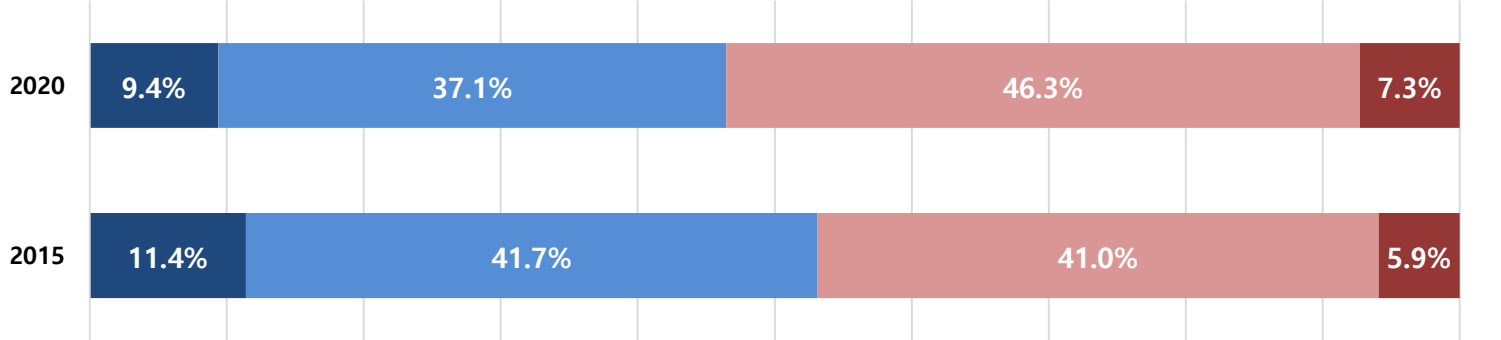
세계화 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문항으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 영유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2010년 87%, 2015년 93.9%, 2020년 90%),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2010년 조사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 그렇다는 비율이 늘어났다 2020년 조사에서 다시 조금 줄어들었지만 82.2%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훨씬 강하다. 핵무장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5년 66.5%, 2015년 68%, 2015년 71%로 계속 늘어났다가, 2020년 61.8%로 줄었다.

# 세계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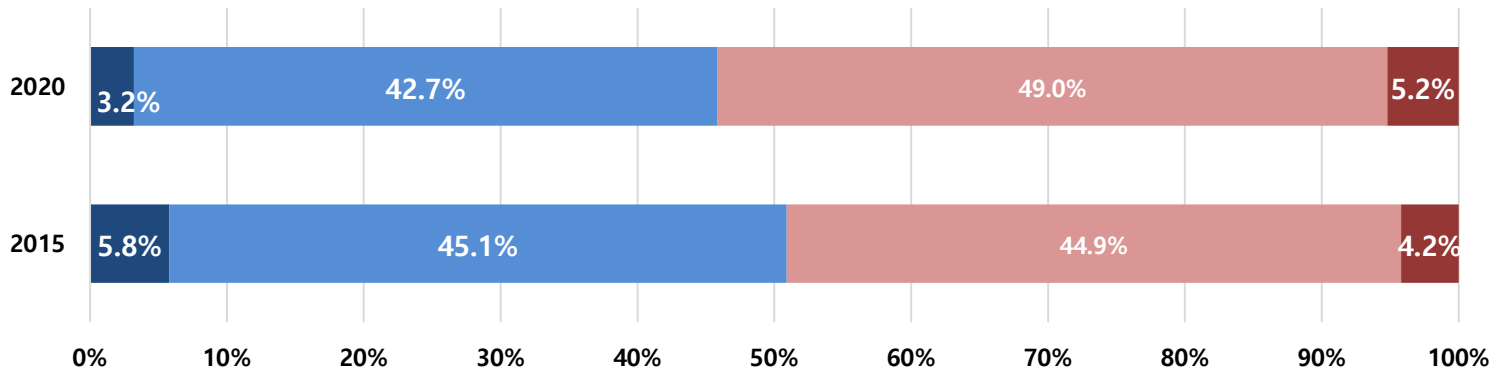
세계화 시대에  
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국산품 애용이란  
시대착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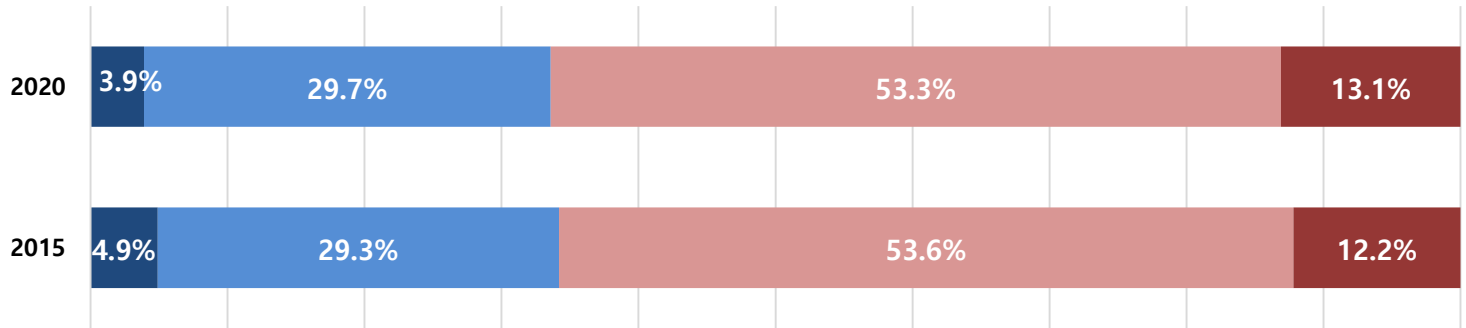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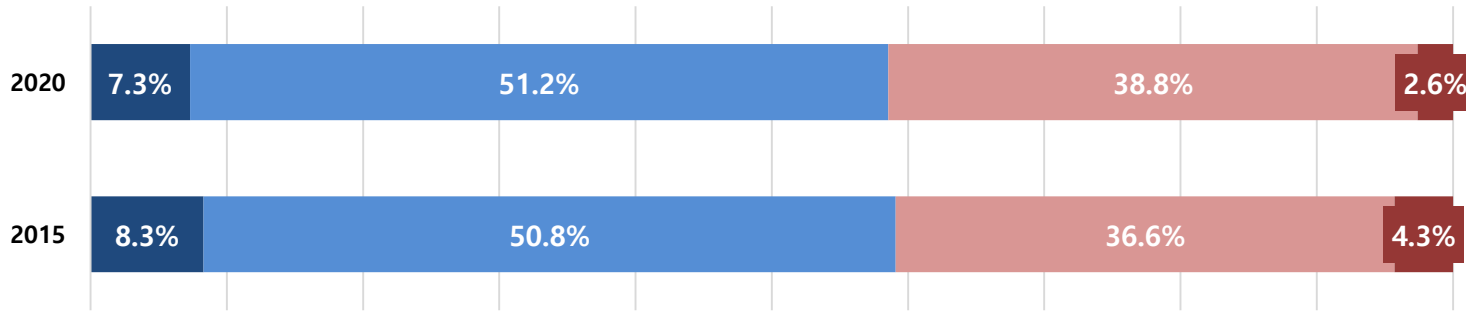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세계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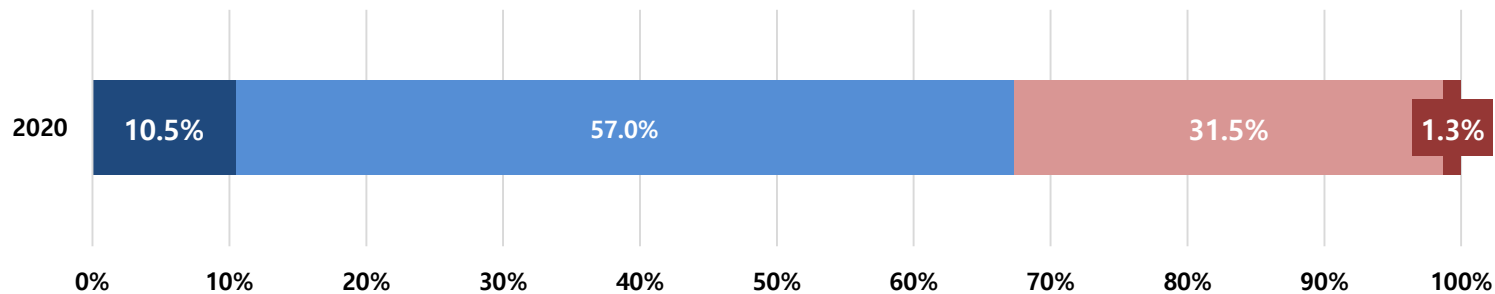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과  
국제기구들의 결정이  
다르더라도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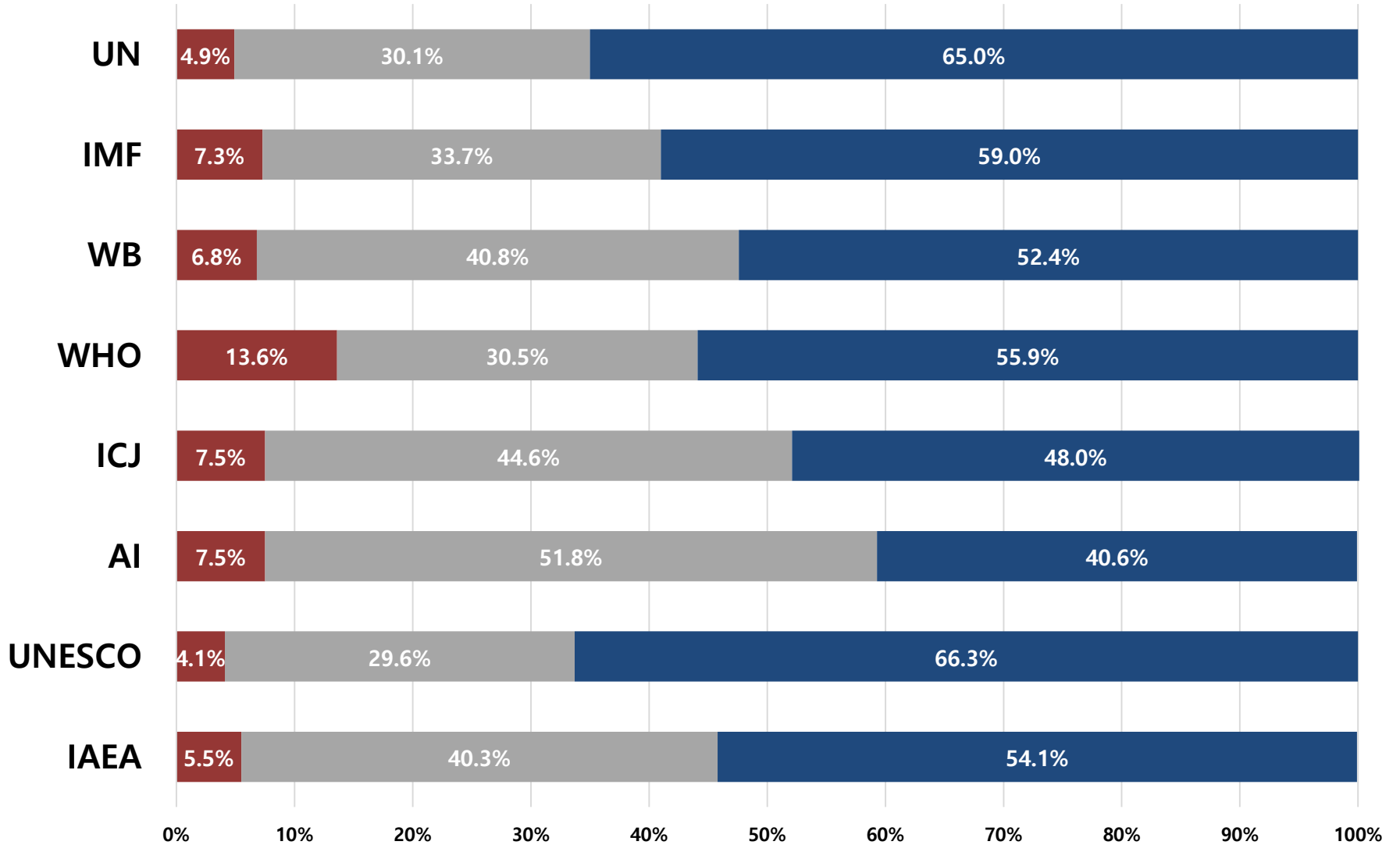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국제기구 신뢰도

■ 불신 ■ 무어라말할수없다 ■ 신뢰



## 정부 신뢰와 국제기구 신뢰의 관계

상관계수가 크지 않지만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 집단이 신뢰하지 않는 집단에 비교하여, UN, IMF, WHO에 대한 신뢰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옴.

		UN	IMF	WHO	UNE SCO
정부 신뢰도	신뢰한다	6.56*	6.25*	5.97*	6.65
	신뢰하지 않는다	6.16*	5.96*	5.82*	6.14

# 세계화인식과 국제기구 신뢰도와의 관계

노란색 부분은 세계화에 긍정적  
파란색 부분은 세계화에 부정적이거나 국가주의 성향의 문항.

몇 개 예외 있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의집단에서 4개 국제기구의 평균 신뢰도 조금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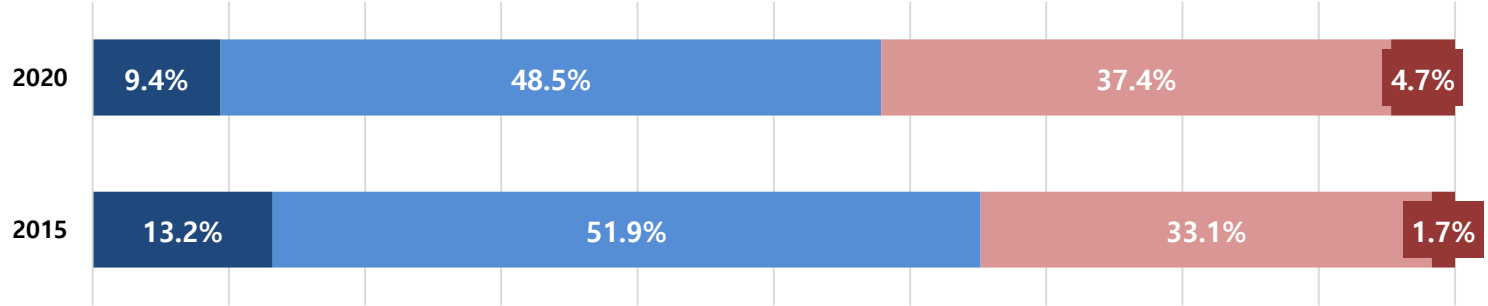
단, 통계적으로 의미있지는 않음.

		UN	IMF	WHO	UNESCO
세계화 시대에 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동의	6.41	6.14	5.92	6.43
	반대	6.23	6.04	5.73	6.33
세계화 시대에 국산품 애용은 시대착오	동의	6.4	6.18	5.87	6.36
	반대	6.36	6.07	5.9	6.45
가난한 나라에 원조 늘려야	동의	6.35	6.12	5.87	6.42
	반대	6.4	6.11	5.9	6.4
외국인이 한국 국적 보다 쉽게 취득	동의	6.41	6.26	5.93	6.48
	반대	6.36	6.05	5.87	6.37
한국과 국제기구 입장 달라도 국제기구 따라야	동의	6.42	6.24	5.98	6.49
	반대	6.32	5.95	5.76	6.29
환경문제 개선 위해 친환경 제품 구매	동의	6.39	6.14*	5.87	6.41
	반대	6.34	6.07*	5.93	6.41
한국은 국제무대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함	동의	6.36	6.12	5.83	6.4
	반대	6.4	6.12	5.91	6.42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경제에 해 끼침	동의	6.43	6.12	5.96*	6.48
	반대	6.25	6.11	5.72*	6.24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화	동의	6.44	6.15	5.93	6.47
	반대	6.2	6.05	5.78	6.23
세계화로 질병확산 막기 어려움	동의	6.42	6.13*	5.92	6.45*
	반대	6.12	6.04*	5.74	6.17*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지켜야	동의	6.41	6.15	5.9	6.46
	반대	6.04	5.83	5.83	5.92
국제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군사력 강해야	동의	6.41	6.13	5.86	6.47
	반대	6.22	6.06	6	6.13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	동의	6.44	6.17*	5.96	6.44
	반대	6.27	6.04*	5.77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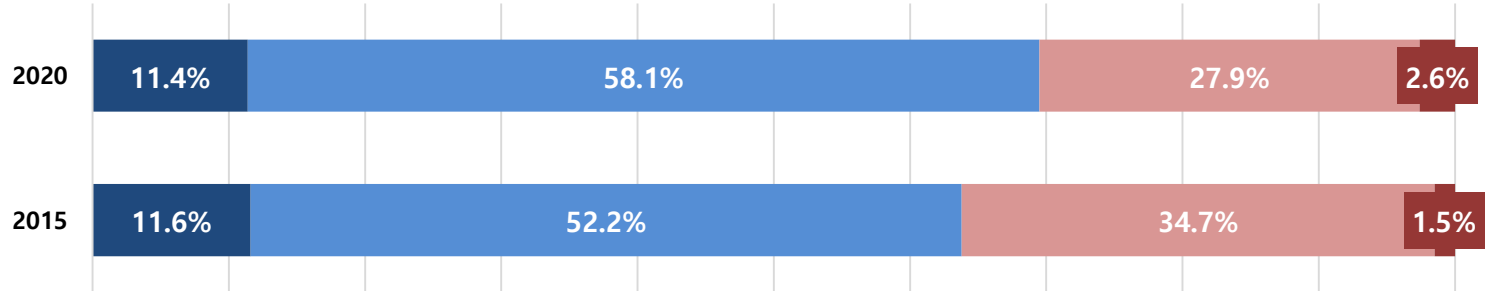


# 세계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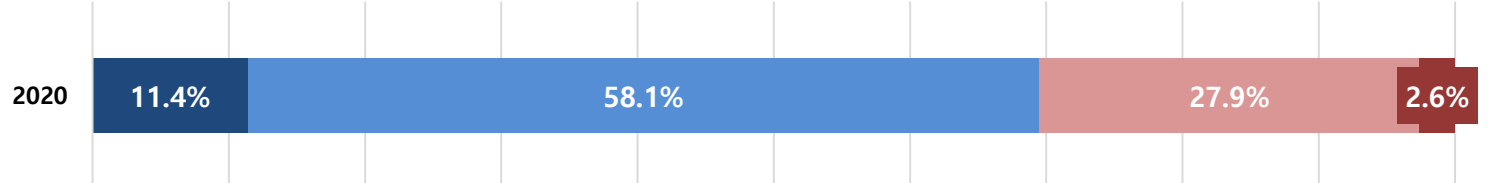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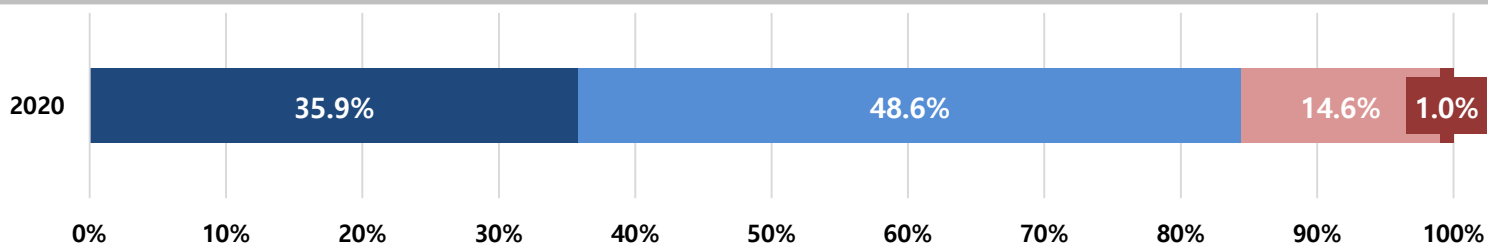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의 경제에 점점 더  
해를 끼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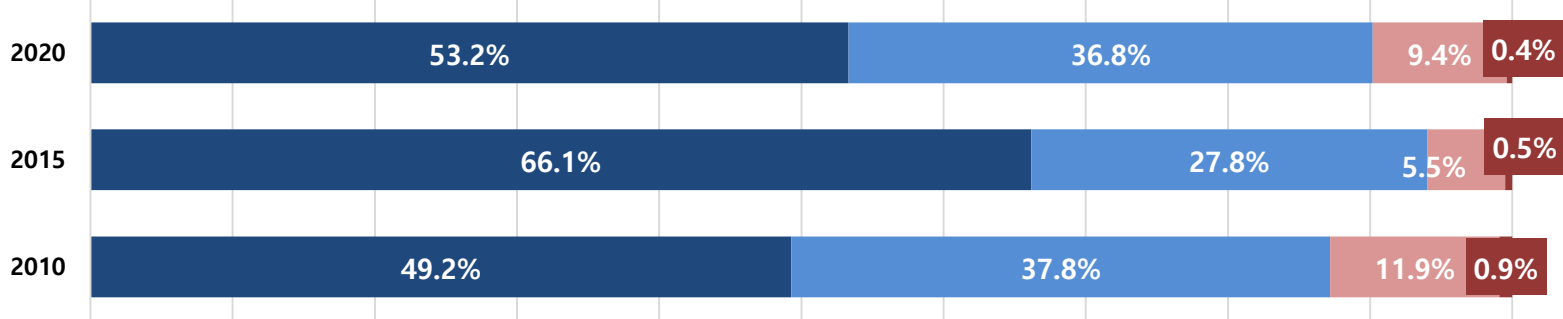
세계화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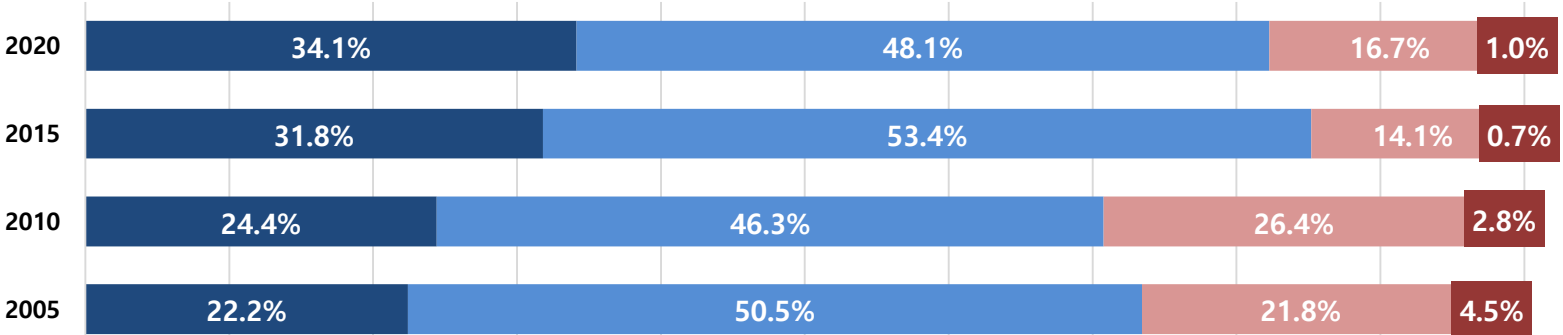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세계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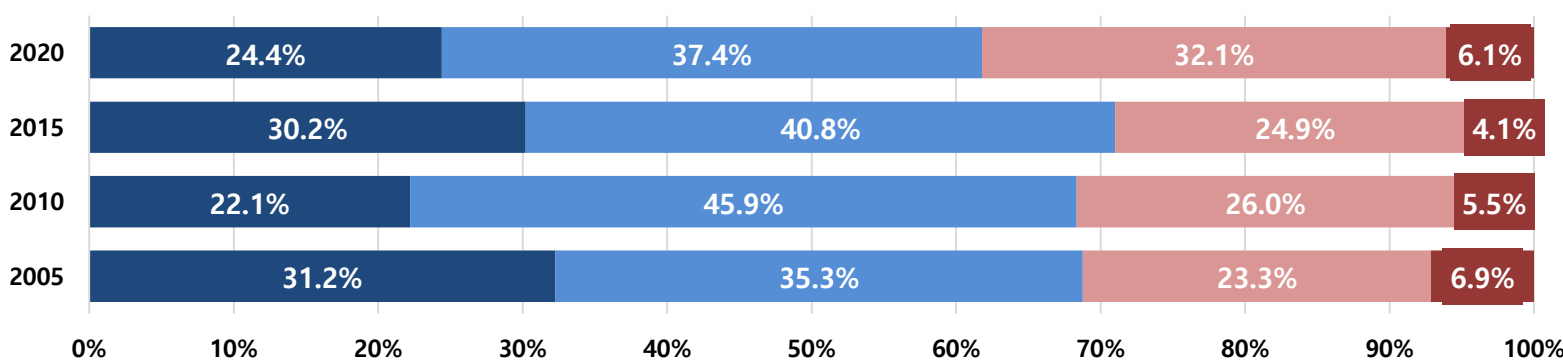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종합하자면, 한국인은 세계화를 무역확대라는 시각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외국인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에는 부정적이다.
- 지난 5년 사이 국산품을 애용하자거나 원조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다소 강해진 것은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이 아직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우세하지만 국제기구 결정을 존중하는 규범적 수용성은 높다. 전염병 확산, 빈부격차 확대, 외국기업 국내시장잠식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 영토문제나 군사력 측면에서는 강한 민족주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핵무장 지지 견해도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강한 민족주의가 국제기구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를 이분화해 세계화에 대한 태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한국에 내셔널리즘은 국제사회에서 국위신장이기도 하여 내셔널리즘은 아웃바운드 세계화와 달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II. 향후 10년 국익에 위협 요인

향후 10년 내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요인을 보면,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이 아님” 3개 선택지에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위협이라고 답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향후 10년내 국익에 ‘매우 위협’으로 답한 비율 순으로 보자면, 전염병의 창궐(66.2%)—북한 핵무기 보유(55.5%)—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55.2%)가 3대 위협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제 테러주의(46.4%)—중국의 강대국 부상/에너지 수급차질/원전 재난/AI 실업위기가 40%대를 조금 넘고 있다. --올 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의 창궐을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더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하게 된 것이 눈에 띄인다. 유사 문제 군별로 추세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국과 미중패권 문제: 2010, 2015, 2020년 3회 조사를 볼 때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대해 9할이 넘는 한국인이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우 위협’이라고 보는 강도가 조금씩 더 늘어났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서도 2020년 조사에서 2015년 조사보다 위협인식이 늘어났고 특히 ‘매우 위협’이라는 답이 10.5% 늘어났다. 2020년에 처음 물어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해서도 95.3%가 위협이라 보았으며 ‘매우 위협’이라는 답이 34.9%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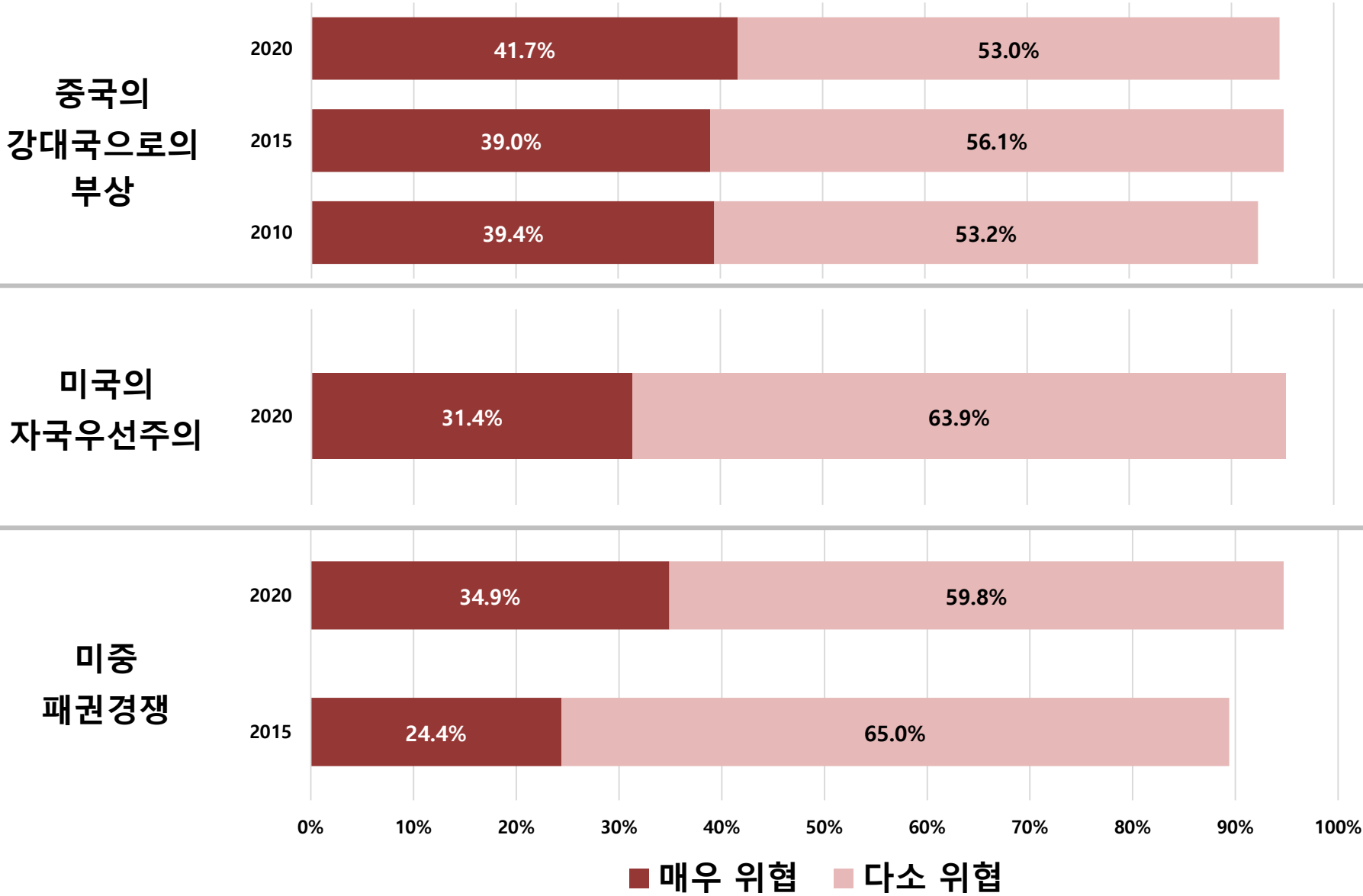
일본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한일갈등에 대해서는 한국 국익에 위협이라고 보는 견해가 여전히 크지만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나 미중경쟁보다는 조금 적다. 중일갈등이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위협인식이 커졌지만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별 변동이 없다. 한일갈등의 경우는 2015년과 2020년 두 조사에서 거의 같은 정도로 위협이라 보고 있지만, ‘매우 위협’이라는 견해는 25%에 그쳐 다른 주변국 위협인식보다 약한 편이다.

북한문제: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가장 위협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의 불안정과 갈등은 비슷한 정도로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매우 위협’이란 인식이 2015년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글로벌 의제: 국제 테러주의, 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 에이즈/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창궐과 같은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위협인식은 지난 15년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전염병의 창궐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2020년 조사에서 20% 가량 크게 늘어난 66.2%가 ‘매우 위협’이라 보았고, 다소 위협을 포함할 경우 위협이라는 답이 96.8%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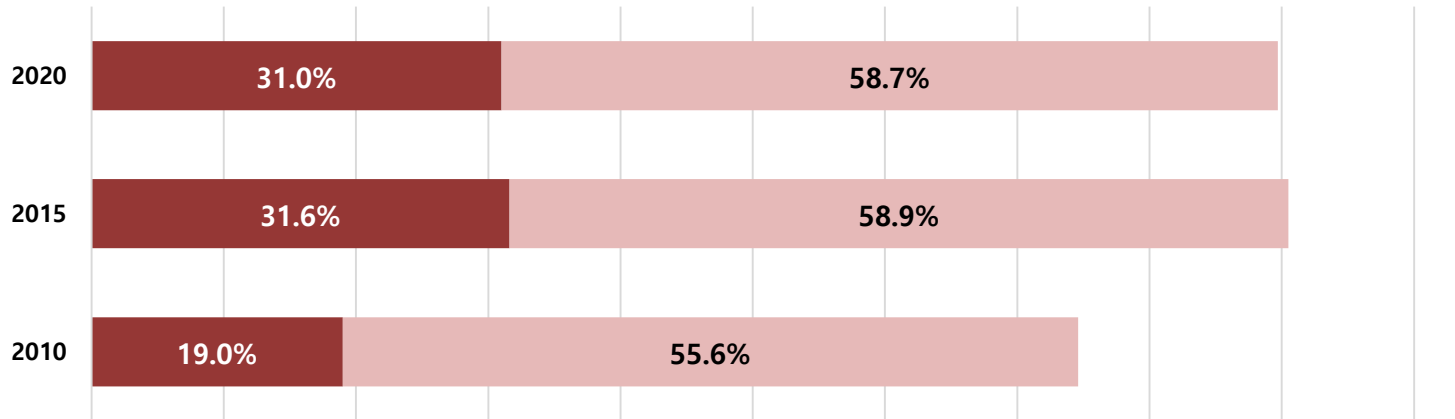
에너지 공급의 차질과 AI로 인한 실업위기 두 문항은 2020년 조사에 새로 들어갔다. 두 문제 각각 위협이라는 답이 95%와 94%에 이르지만 ‘매우 위협’이란 답은 4할 정도에 그쳤다.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에 대한 위협인식은 지난 세번의 조사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 향후 10년 내에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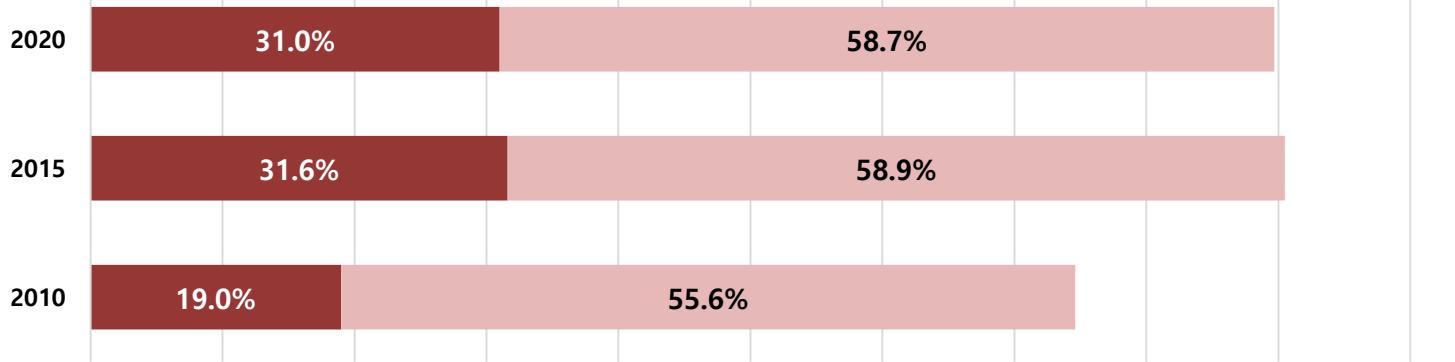


# 향후 10년 내에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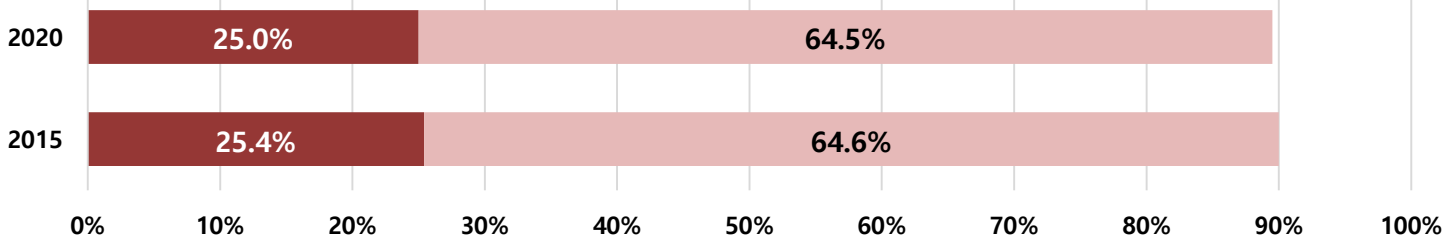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의 갈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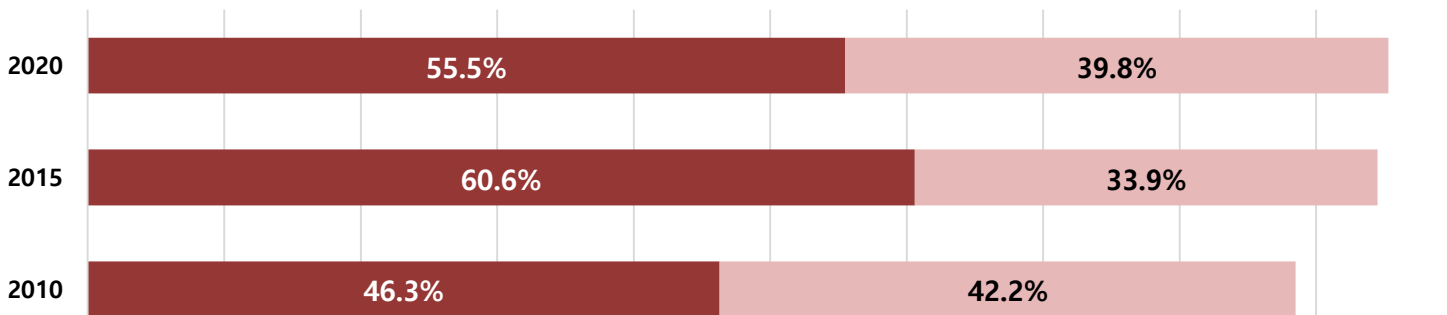
한일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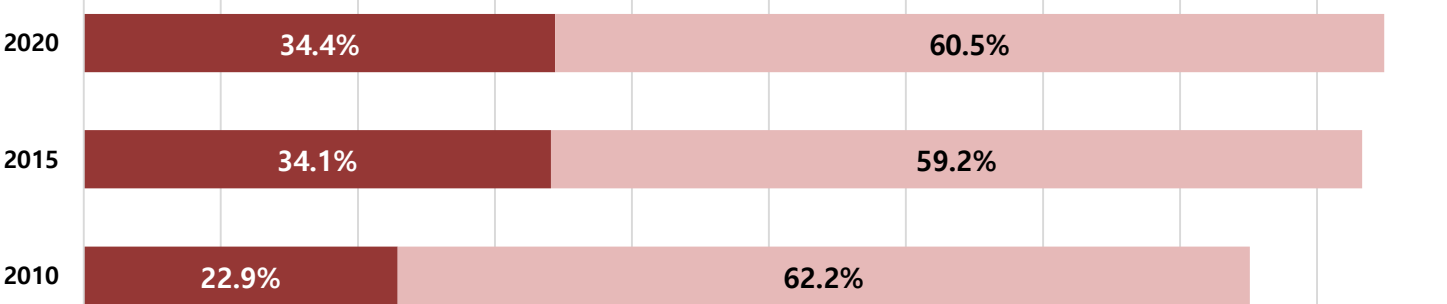
■ 매우 위험 ■ 다소 위험

# 향후 10년 내에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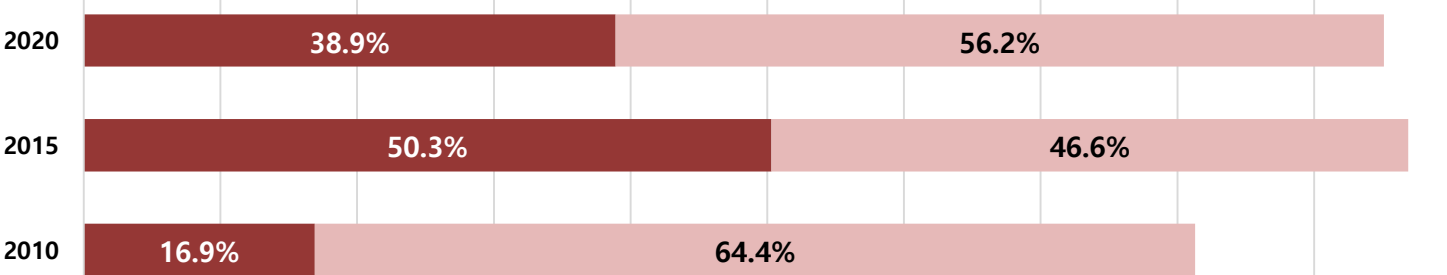
## 북한의 핵무기 보유



## 한반도의 불안정과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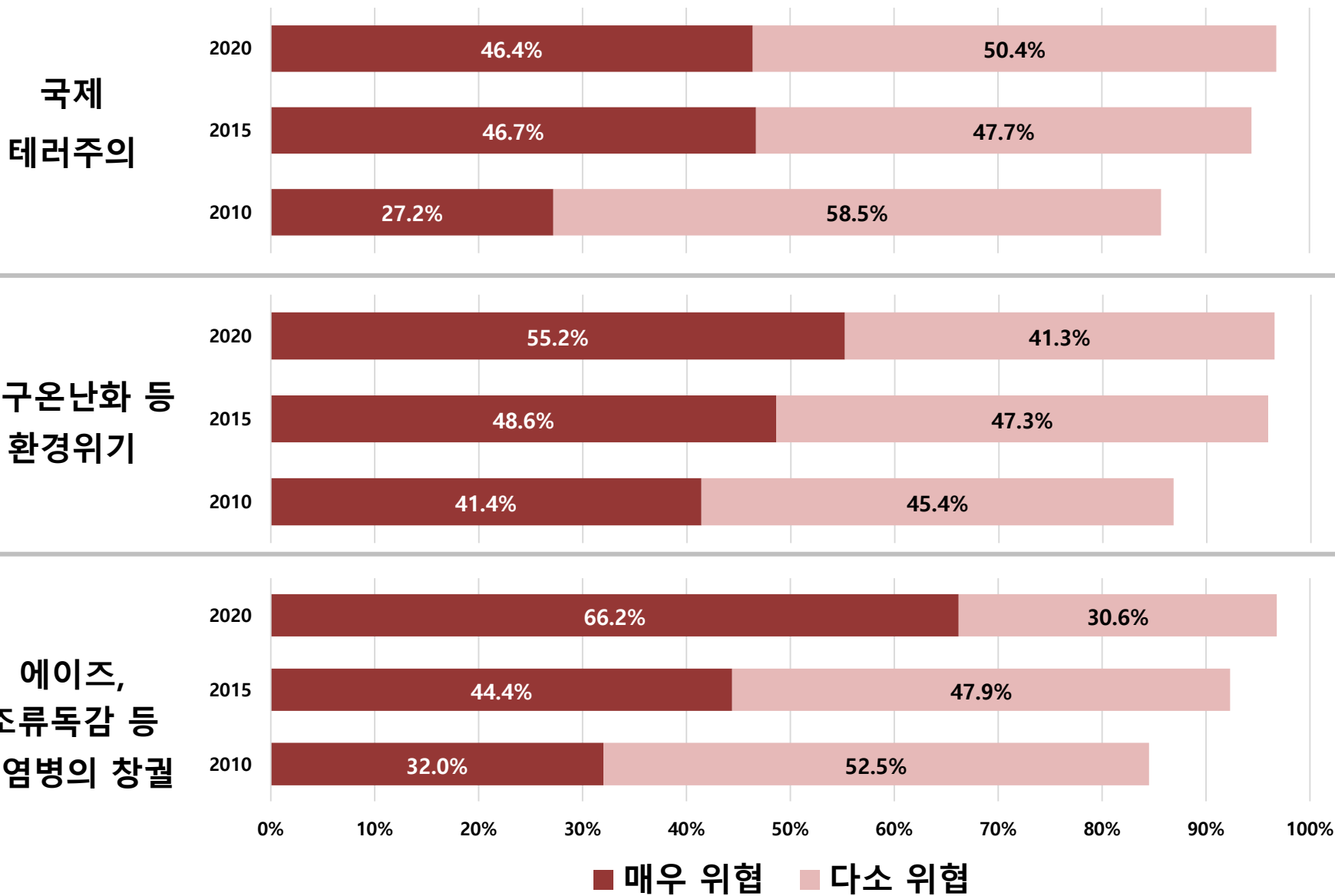
## 북한 급변사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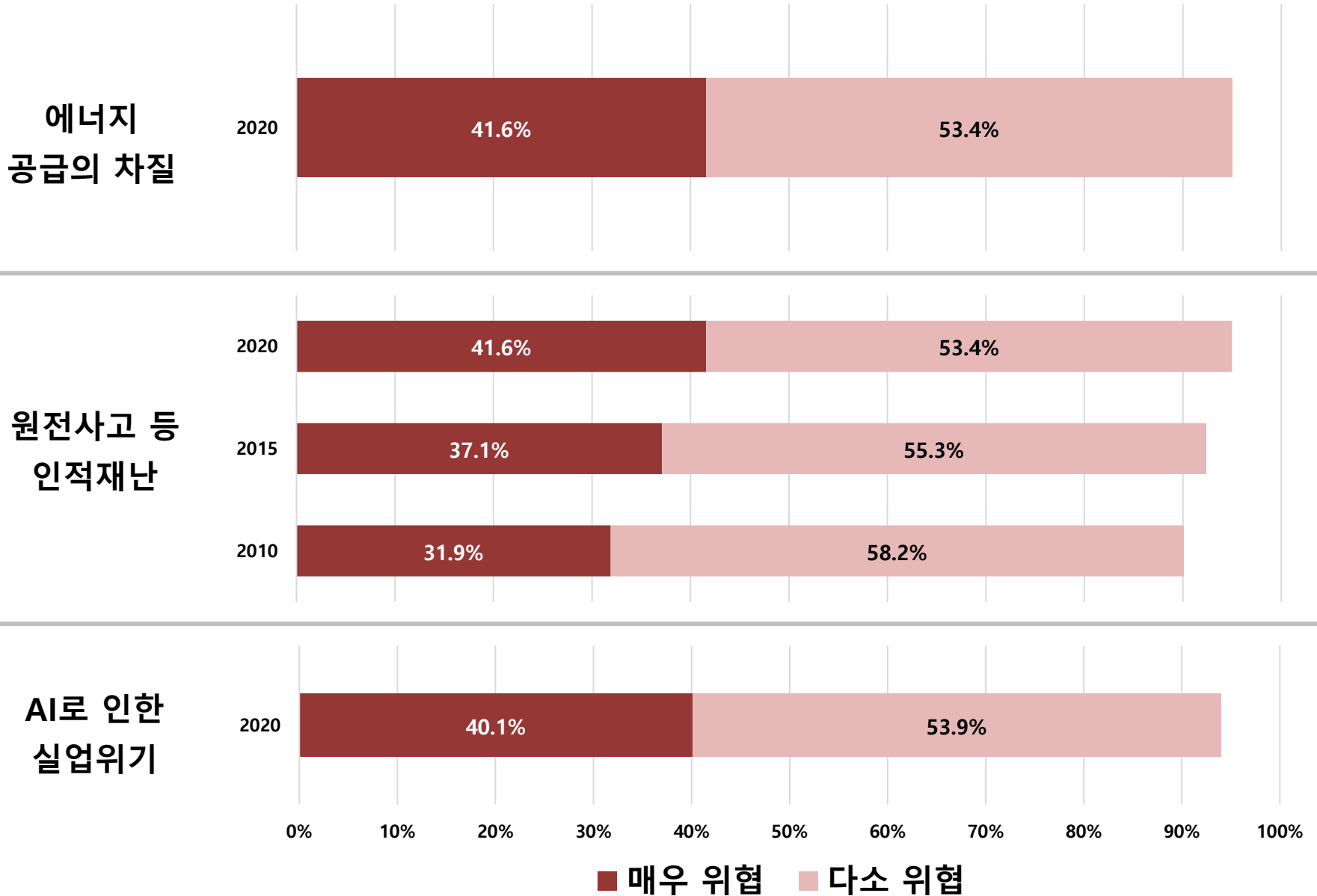
■ 매우 위험 ■ 다소 위험

# 향후 10년 내에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험요인





# 향후 10년 내에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험요인



# III. 주변국에 대한 감정과 정책선호

주변국가별 호오도에 있어서는 미국만이 2015년과 2020년 조사 모두에서 '우호적'이라는 답이 77.3%와 6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국은 2015년 조사에서는 50%가 우호적이라고 답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20.4%만이 우호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2015-2016년 싸드도입을 둘러싼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경제 보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적대적'으로 보는 감정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65.7%)보다 높은 71.9%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 이는 2019년도 여름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에서 나타난 것 처럼 반일감정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국인 3명 가운데 2명 꼴로 '균형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강화'보다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9.6%와 13.9%로 높았다.

동아시아연구원의 한일미래대화 서베이는 일본과 중국 중 더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를 물어왔다. 2020년 정체성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물었다.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답이 지난 3년간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조사에서는 두 나라 모두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일본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과 비슷한 20%대 응답비율을 보였었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중일 모두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이 무려 배나 오른 44.5%를 기록했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지난 3년 조사에서 모두 부정적 견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는 2018년 60.9%에서 2019년 66.2%로 올랐다가 2020년 58.3%로 줄어들었다. 2019년 한일 무역분쟁이후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과거사문제는 항상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전쟁 위안부문제나 강제징용 희생자 배상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처리에 대해 안보와 경제 문제들과 분리접근보다는 연계한 동시 해결 지지 여론이 지난 5년 사이 더 커져 61.2%에 이르게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주요 국가에 대한 감정

■ 적대적 ■ 중립 ■ 우호적

미국



중국



일본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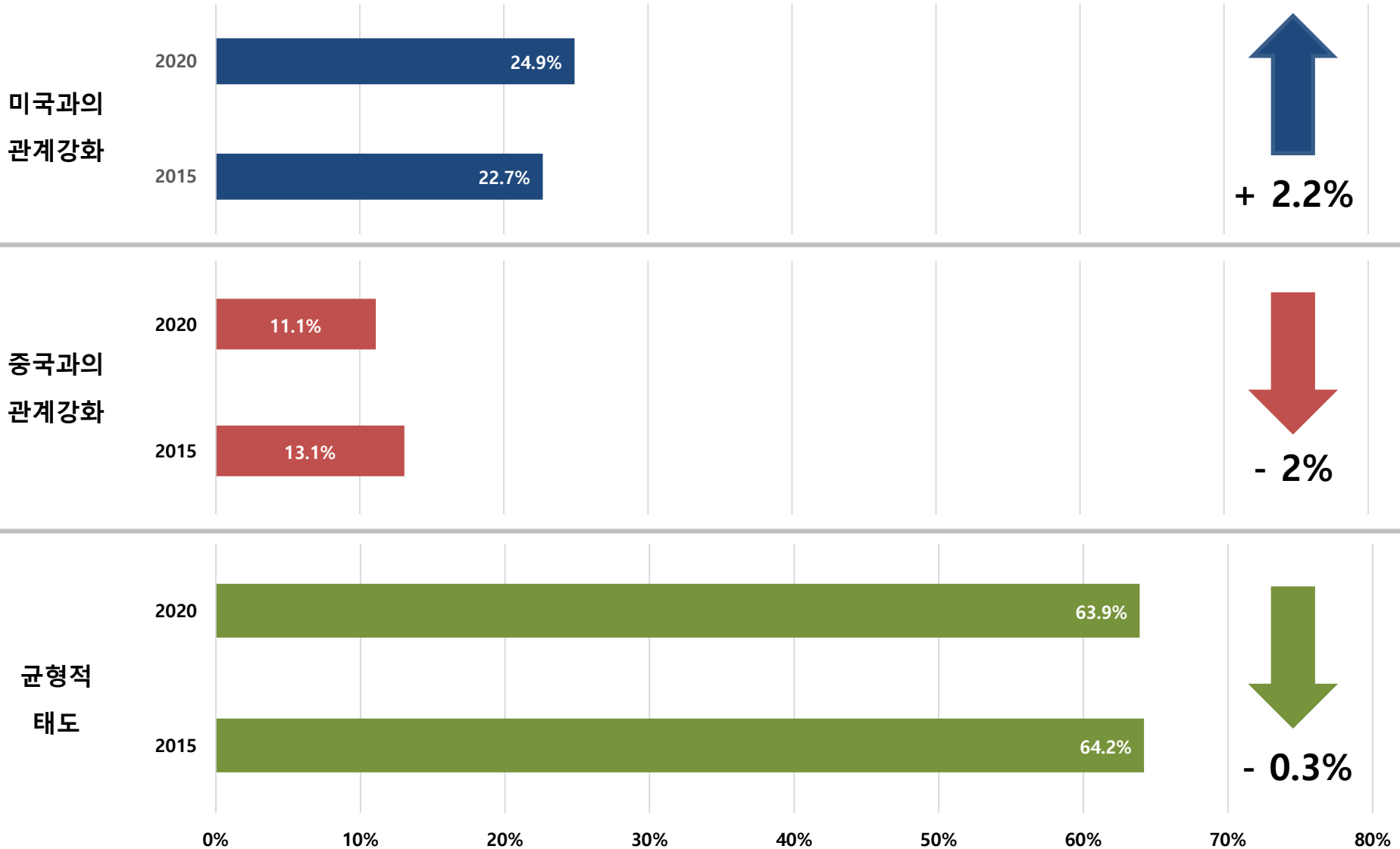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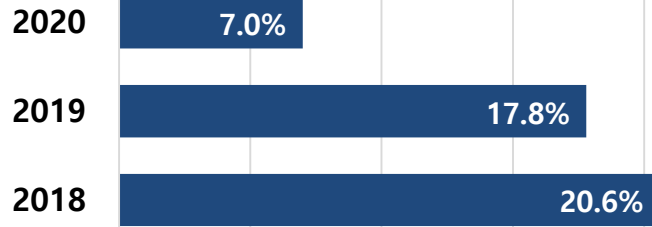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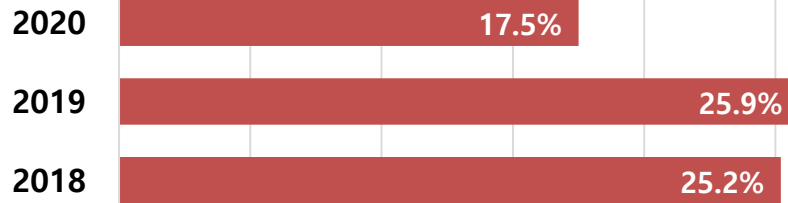


# 일본과 중국 중 더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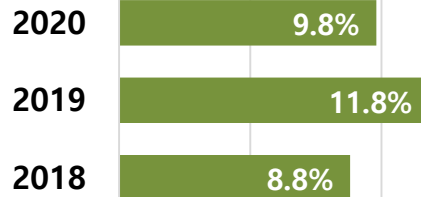
일본에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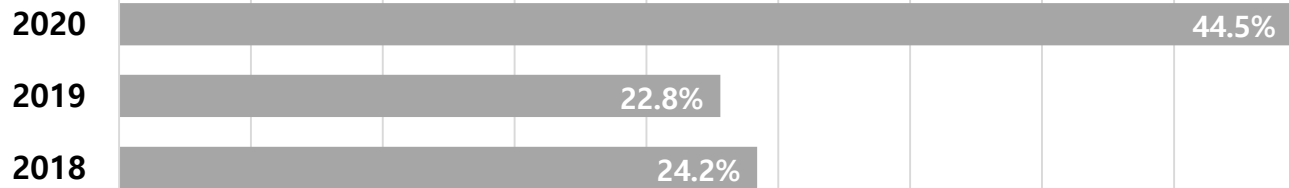
중국에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



두 나라 모두 동일한  
친근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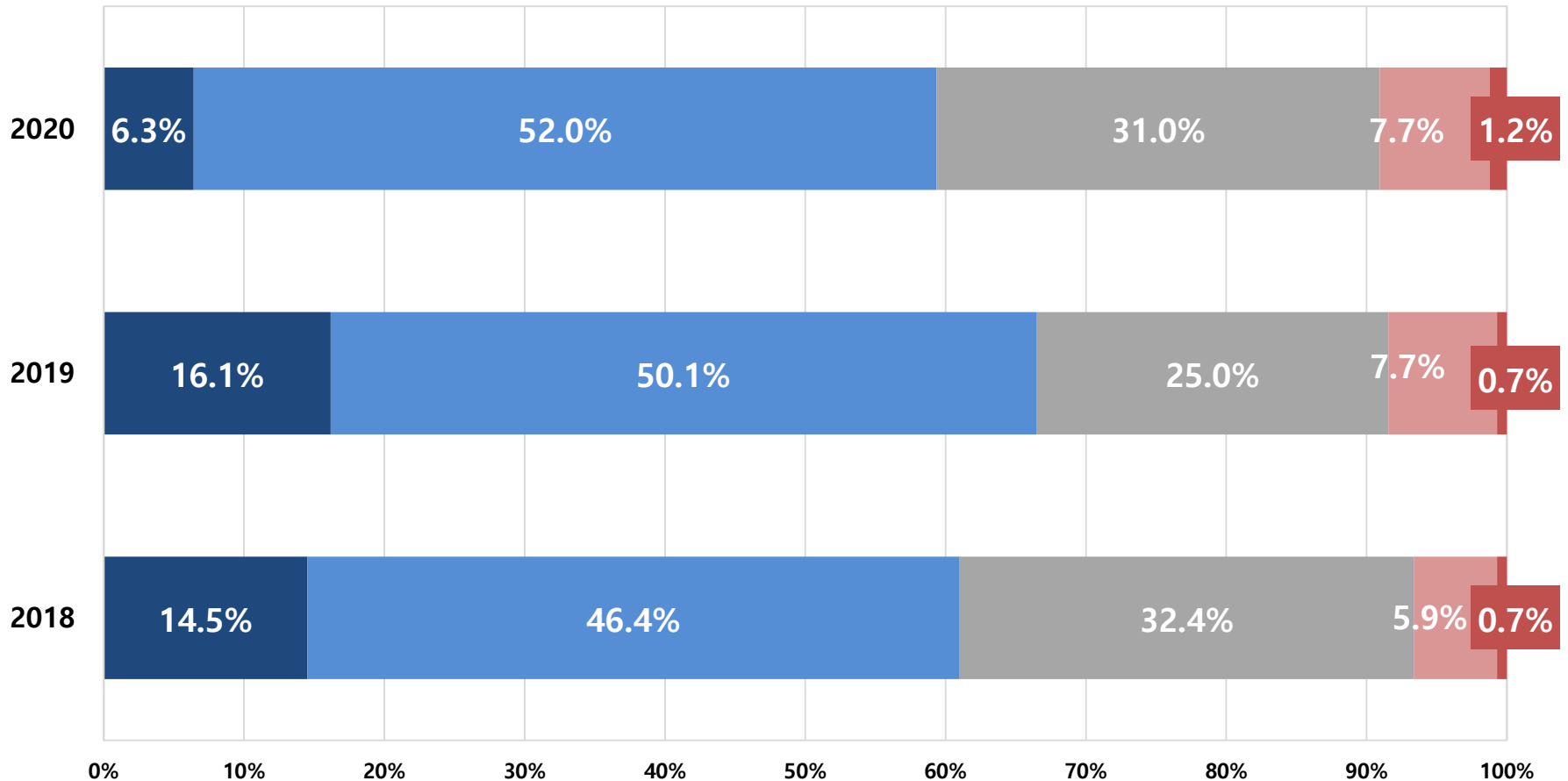
두 나라 모두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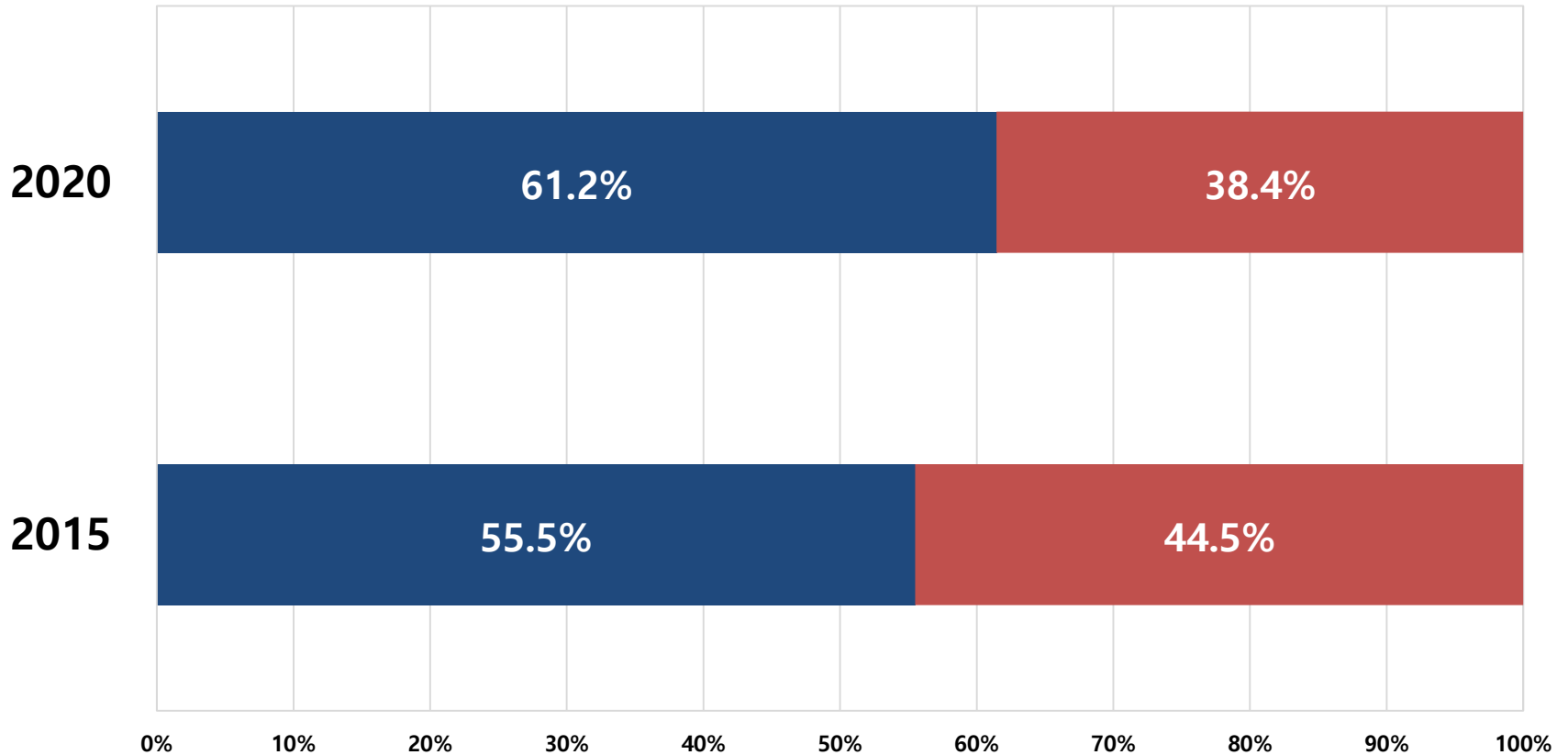
#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 매우 그렇다
- 일정 부분 그렇다
- 어느쪽도 아니다
- 대체로 부정적이다
- 매우 부정적이다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역사문제 접근방식

■ 연계하여 동시에 해결 ■ 분리하여 접근



# 한미동맹

한미동맹 강화는 지난 15년 동안 점차 강화되어 왔다 (30.3% → 44.6%); 반면에 독자외교 추진은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만 해도 한미동맹 강화보다 6.8% 높다가 2015년 20.9%로 줄어들었다. 2015년에는 다시 2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동맹 강화 의견보다 훨씬 약하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동맹 강화 의견이 우세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3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동맹 강화 의견이 독자외교 추진보다 많은 정도는 30대와 40대에서 각 6.8%로 가장 낮고, 18-29세에서는 8.3%, 50대에서는 15.6%로 올라간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와 고졸 학력의 경우 동맹 강화 의견이 독자외교 추진의 두배를 좀 더 넘고 있는 반면에, 전문대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5.6%만이 동맹 강화를 더 지지하고 있다.

지지정당별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독자외교 추진과 한미동맹 강화가 33% 대 35.5%로 별 차이가 없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경우 15.9% 대 61.2%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자기 주관적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자가 독자외교 추진을 3.6% 더 선호하는 반면에 중도적 이념성향을 가진 자는 15.5%가,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진 자는 45%가 독자외교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더 지지하고 있다. 한국인의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에 있어 정당 일체감과 이념 지향성이 주요 설명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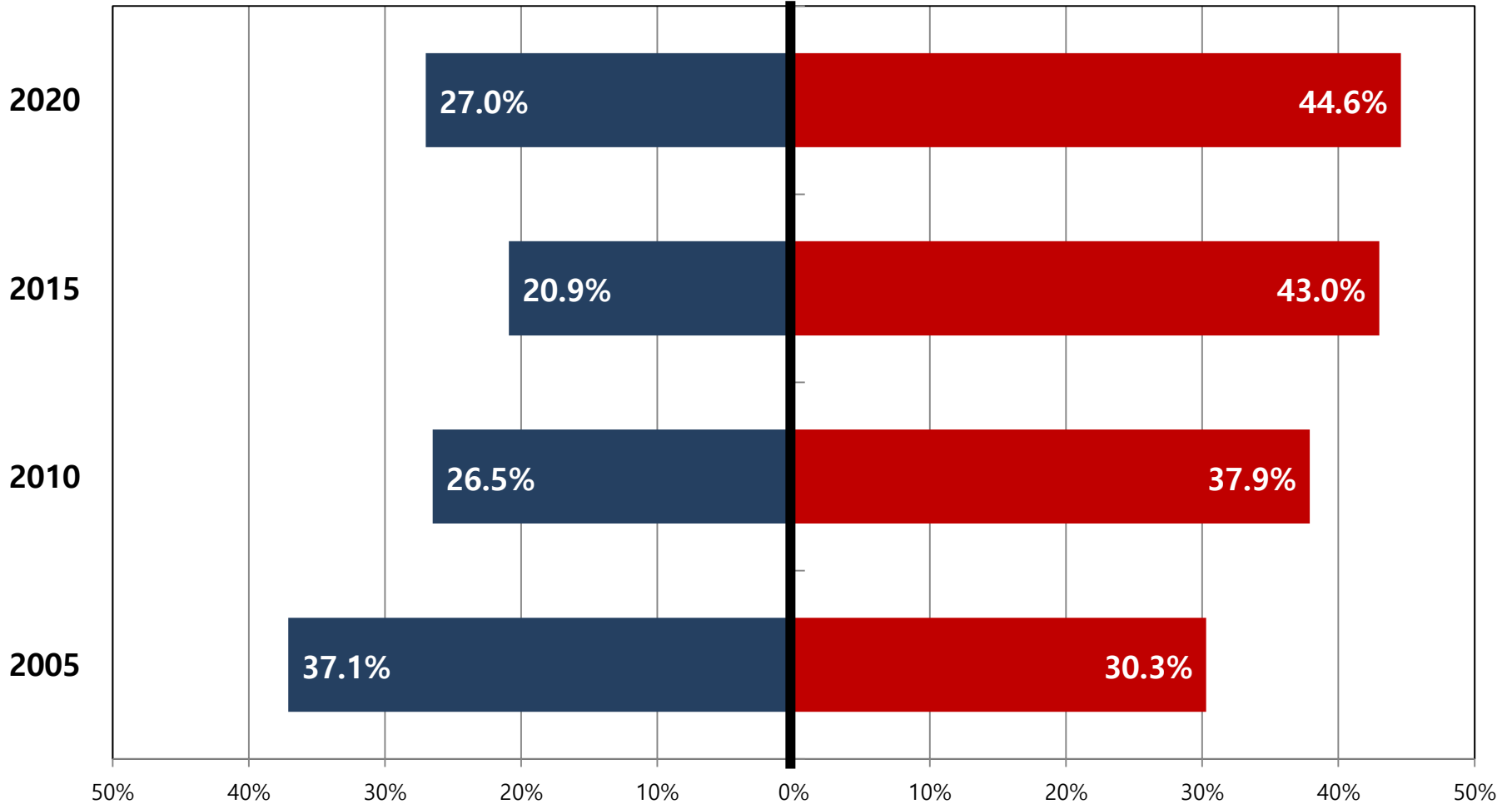
⇒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지난 15년간 꾸준히 강화되어 오고 있다. 한미동맹은 90년대 후반 환경오염과 군기지 여성 인권문제 등 주한미군기지문제로 악화되다가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사건 계기로 SOFA개정 촛불시위 등 반미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그러나 이후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역사회 아웃리치 사업과 미 정부의 공공외교 등을 통해 개선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균형자로서 한미동맹을 보는 인식이 커지면서 동맹지지 견해가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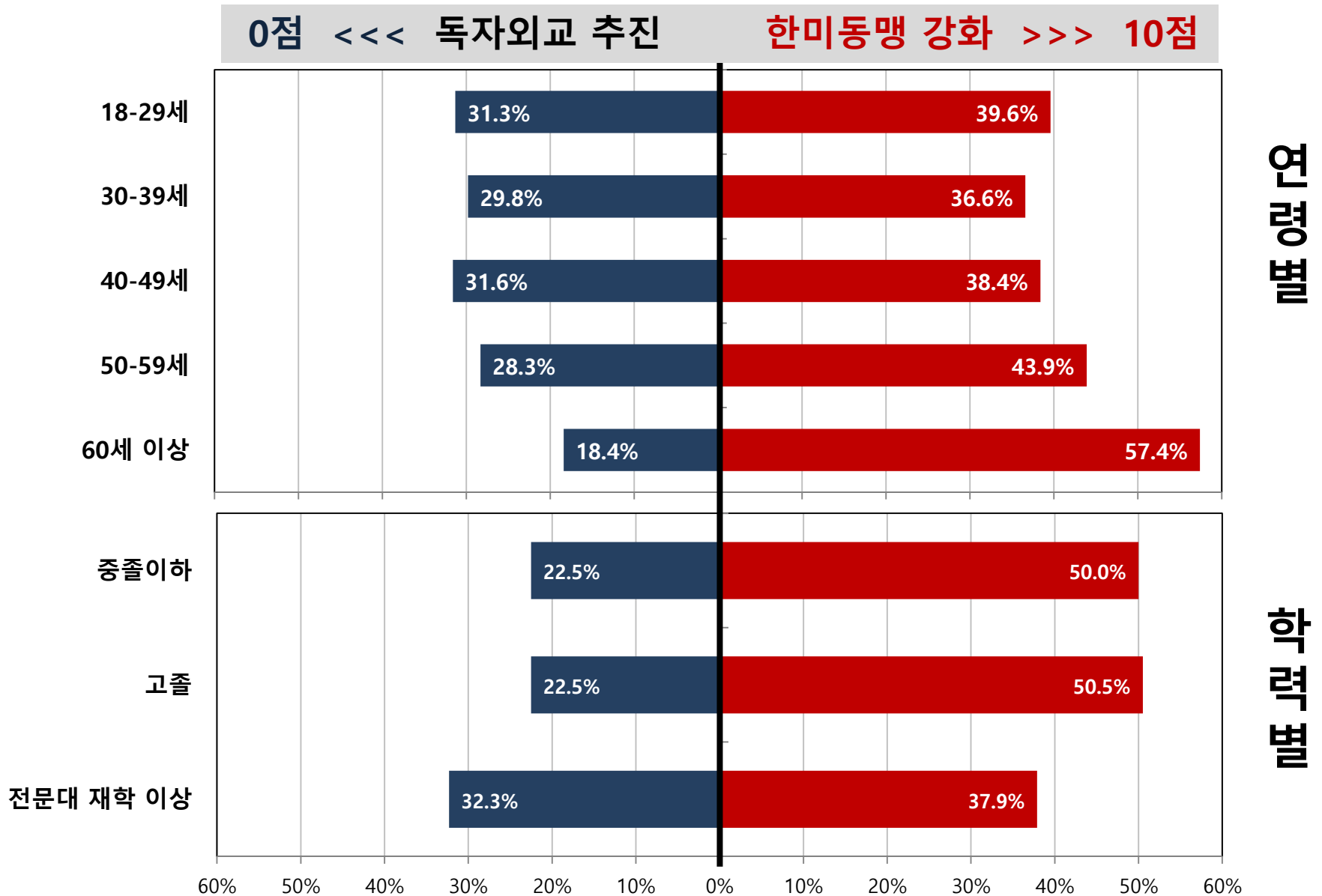
# 바람직한 한미관계

0점 <<< 독자외교 추진

한미동맹 강화 >>> 10점



# 주요 요인 별 바람직한 한미관계 인식 (2020)



# 주요 요인 별 바람직한 한미관계 인식 (2020)

0점 <<< 독자외교 추진      한미동맹 강화 >>> 10점

